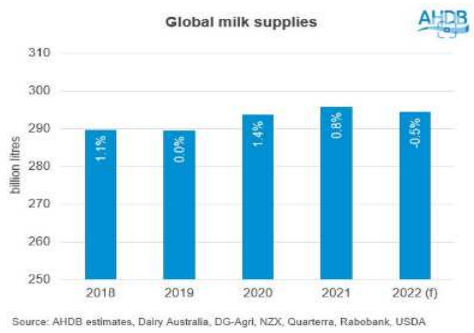
Global Dairy Report
글로벌 낙농뉴스
해외 정책동향 및 낙농뉴스

2022.07.28 | www.dairy.or.kr | 통계조사팀(044-330-2072)

[낙농생산] 금년 세계 원유생산량 감소 전망 – 英 AHDB 발표

–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으로 금년 생산량 0.5% 감소 전망



금년 세계 원유생산량 감소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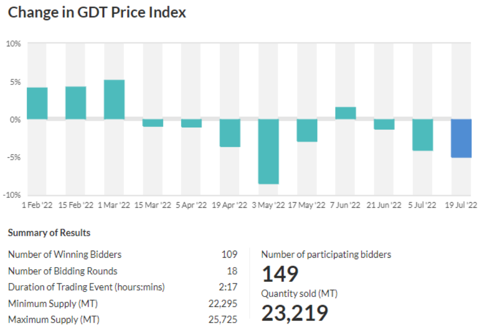
최근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는 원유가격은 상승한 반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서 생산비가 급상승 하고, 기상악화 등에 따른 제약으로 금년 세계 원유생산량이 0.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의 경우 최근 전례 없는 폭염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건초 수확량이 줄어들어 사료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며 원유생산량은 물론 지방과 단백질 함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공에 사용되는 원유공급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생산비 부담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 환경규제 강화, 기상악화 등의 요인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미국, 아르헨티나 등 주요 유제품 수출국의 원유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출처 : ahdb.org.uk, 7월 19일 〉

[가격동향] GDT 유제품 가격 연속 하락세

– 북반구 여름 휴가철, 인플레이션 등으로 수요 감축



지난 7월 19일 실시된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5% 떨어지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격지수 또한 1,223 포인트로 전장대비 6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탈지분유가 톤당 3,709달러(약 484만원)로 전장대비 8.6% 떨어지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전지분유도 톤당 3,757달러(약 490만원)로 5.1% 하락하며 그 뒤를 이었다.

버터도 2.1% 하락한 톤당 5,530달러(약 722만원)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주전 재반등했던 체다치즈도 2% 하락한 톤당 4,825달러(약 630만원)를 기록하며 이번 경매의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과 미국의 사료 가격이 급상승한 가운데 뉴질랜드의 건조한 날씨와 호주의 폭우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원유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주춤함에 따라 가격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출처 : globaldairytrade.info, 7월 19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